

“행복한 ‘소리’ 할 수 있어 감사”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 도전하는 소리꾼 방성춘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를 흔히 판소리 다섯 바탕이라 부른다. 소리꾼들에게 판소리 완창 무대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다.

한번 공연하는 데 작품에 따라 길게는 7~8시간까지 걸리는 완창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특히 다섯 바탕 완창은 실력과 함께 지난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만 얻어지는 것이다. 내로라 하는 인간문화재급 소리꾼들 가운데서도 다섯 바탕 전체를 완창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올해로 소리 인생 50년을 맞는 방성춘(광주시 무형문화재)씨가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 무대에 나선다. 방씨는 9일 오후 5시

9일 ‘적벽가’로 마무리... 88년 ‘춘향가’ 이후 19년만

“다섯 바탕 모두가 아들·딸처럼 자식같은 작품”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적벽가’ 완창 무대에 도전한다. 지난 1988년 첫 완창 무대로 ‘춘향가’를 공연한 지 19년만이다.

“마지막으로 ‘적벽가’ 완창 무대를 준비하며 팍도 많이 흘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체력이 예전만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연습하다 보면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기도 했죠.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정숙·이일주 선생님을 찾아가 다시 배우고, 또 배우며 연습했습니다.”

‘춘향가’ 이후 ‘심청가’(1991), ‘흥보가’(1993), ‘수궁가’(2003) 완창무대를 가진 방씨는 이후 호랑이 남성소리로 대표되는 ‘적벽가’를 추켜들었다.

“처음 ‘춘향가’ 완창무대를 가질 때만해도

다섯 바탕을 모두 부르게 될지는 몰랐죠. 한두 작품 계속하다보니 마지막 ‘적벽가’를 하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독한 마늘 먹고 달려들었어요. 제 소리는 부족한 게 많고 내놓기 부끄럽기도 해요. 하지만 소리꾼에게는 영원한 꿈인 다섯 바탕 완창 무대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참 행복합니다.”

‘흥보가’ 중 흥보네 가족이 첫박을 타는 대목을 가장 즐겨 부른다는 방씨는 다섯 바탕 모두가 아들·딸처럼 자식 같은 작품이라고 말한다.

13살 때 소리 공부 시작한 방 씨는 공대 일·오정숙·이일주 선생을 사사했으며 전주 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 등을 수상했다. 전남도립국악단 지도위원을 거쳐 (사)동조제 서봉판소리 진흥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소리 하나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제는 좋은 제자를 키우는 데 몰두해야죠. 다행히 부지런히 따라와 주는 제자들이 많아 보람을 느낍니다. 며칠 후엔 제자가 ‘춘향가’ 완창무대를 갖는데 너무 대견스럽고 기특하죠.”

방 씨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구수한 입담 전라도 사투리

이대흠·김규남씨 산문집 ‘이름만...’ ‘눈 오는 날...’ 나란히 출간

전라도 사투리의 구수함을 느끼게 해주는 산문집 두 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장흥 출신 시인 이대흠씨의 ‘이름만 이빠면 머한다요’(원쪽)와 전북 완주 출신 전북 언어문화연구소 김규남 소장의 ‘눈 오는 날 새벽 사막 비 오는 날 장강장강’(이상 문학동네).

이씨는 전남, 김 소장은 전북의 사투리를 주제로 하고 있어서 같은 듯 다른 두 사투리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최근 장편소설 ‘형영’(실천문학사)에서도 전남 사투리를 걸쭉하게 구사했던 이씨는 이곳저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을 담

았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10년 전 낙향한 이씨에게 “사라져가는 전라도 방언을 귀로 듣고 새기”는 일은 시를 쓰는 데도 큰 ‘힘’이 돼주었음을 시인은 고백한다.

김 소장은 학자답게 단어의 원형과 형성과정, 용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일상 생활 속의 사투리는 물론 민담, 민요, 고전 문학, 판소리 등에 담긴 방언들을 실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무표정한 현대인의 군상

이동한 ‘병적인 웃음’展 1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한국화가 이동한씨가 ‘병적인 웃음’을 주제로 11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지난 2005년 광주신세계미술제 장려상을 수상한 그는 이번 수상작가 초대전에서 ‘양(羊)’과 ‘군중’이라는 소재로 인간사회의 부조리를 차갑게 들여다본다.

그는 ‘순한 양’ ‘어린 양’ 등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양의 모습에 인간을 투영시켜 현대 사회의 문제를

고발한다.

‘병적인 웃음’은 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대 국가의 총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고 있으며, ‘무리’ 연작은 고달픈 현실에 지친 무표정한 군상을 그리고 있다.

조선대 미대 회화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뒤 4차례 개인전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병적인 웃음’

시민과 함께 9월 광장음악회

8일 금남공원에서 ‘오페라갈라’ 공연

광주 금남공원(옛 한국은행 자리)에서 열리는 광장음악회 9월 공연이 8일 오후 7시에 시민들을 찾아간다.

‘오페라 갈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랑의 묘약’ ‘휘가로의 결혼’ ‘리콜레토’ 등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출연자는 김백호(테너), 이현희(소

프라노), 신은정(메조 소프라노), 박지현(피아노)씨 등이다.

또 이창훈(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씨와 제자들이 ‘마지막 카니발’, 드라마 ‘하얀거탑’ 주제곡 등을 들려준다.

10월 공연은 오는 14일 오후 6시 ‘충장로의 추억’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N 피아노’ 정기연주회

10~11일, 13일 전남대 콘서트홀

전남대 출신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인 C·N 피아노(회장 한정숙·사진) 제8회 정기연주회가 10~11일, 13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환상곡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르토크부터 현대에 이르는 피아노 독주곡과 앙상블로 이루어진 환상곡(관타지)을 집중 연주한다.



연주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환상곡 작품 77’, 멘델스존의 ‘관타지 작품 번호 28’ 등이며 출연진은 조현영·송지영·박제희·함지연·조선미·위은정·배소현·백영미·박영숙씨 등이다. 이번 공연은 8일 오후 서울 영산양재홀에서도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착수

딱딱하고 무표정한 지역 공공시설물 등에 예술적 디자인을 접목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는 5일 “지역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된 광주시 남구청 등 5개 기관이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 사업은 낙후된 공공시설물을 개선하고 지역특화

상품·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에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시책 사업.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지자체는 광주시 남구청, 여수시, 진도군, 전북 장수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기관이다.

남구는 대충동 전통문화체험 및 전승형 공공환경시설물 디자인개발에 착수, 벤치·가로 등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여수시는 도심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표준 디자인을 개발한다. 진도군은 문화·관광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 표준디자인 개발에 나선다.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공공기관은 25% 이상 현금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디자인센터 이봉규 원장은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공공시설물에 예술적 디자인 입힌다

movies

이제껏 상상한 적이 없는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아파트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최고급관

2관 스타더스트(12세)

3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5세)

4관 스타더스트(12세)/미스터 브룩스(18세)

5관 디스터비아(12세)

6관 데쓰 프루프(18세)

7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12세)

8관

9관

10관 척 앤 래리(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화려한 휴가(12세)

2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12세)

3관 마이파더(15세)

4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5관 디워(12세)

6관 만남의 광장(12세)

7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욕실·욕외 주차장 300대

• 낮고 높은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할토시랑 영화시랑 • 에매:www.joycbs.com/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의역과리문)

1관 디워(12세)

2관 척 앤 래리(15세)

3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12세)/미스터브룩스(18세)

4관 마이파더(15세)

5관 샬롯의 여왕(12세)/사랑의 레시피(연세)

6관 디스터비아(12세)/만남의 광장(12세)

7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12세)

8관 데쓰프루프(18세)

9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10관 화려한 휴가(12세)

• 요즘 최대 주차장 • 매입이상이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연말 배편 -1번 or 2번 -1면

콜롬버스 하남점(107면) 점관리 상영중

즐거움이 가득 •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척 앤 래리(15세)

2관 만남의 광장(12세)

3관 사랑의 레시피(연세)

4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12세)

5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6관 마이 파더(15세)

7관 디워(12세)/샬롯의 여왕(12세)

8관 데쓰 프루프(18세)

9관 화려한 휴가(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타임스퀘어 회원권을 위한 전용행구 미연 인터넷 예매 문의

• 전화예약 가능 1588-9101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세로모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960

1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12세)

2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3관 화려한 휴가(12세)

4관 마이 파더(15세)

5관 미스터브룩스(18세)/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5세)

6관 만남의 광장(15세)/디워(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ARS 전화예약 문의 227-1960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